

특집 | 올림픽의 재해석: 21세기 일본과 메가스포츠 이벤트

2020년 도쿄 올림픽과 아베의 올림픽: 부흥올림픽, 헌법 개정 그리고 올림픽 연기

| 윤석정

본 논문의 목적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 의한 2020년 도쿄 올림픽의 정치적 이용, 즉 아베의 올림픽을 부흥올림픽 이념과 헌법 개정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올림픽의 연기 과정을 아베의 올림픽이라는 관점에서 논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의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논하였다. 첫째, 아베에게 부흥올림픽이란 자신의 창조물이 아닌 올림픽에 개입하기 위한 매개였다는 점이다. 아베는 도쿄도가 주도하던 2020년 올림픽 유치전의 일원에서 시작하여, 점차 부흥올림픽을 매개로 올림픽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자신의 올림픽을 만들기 시작했다. 둘째, 아베는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을 헌법 개정을 완수하는 해로 삼았다는 점이다. 아베에게 1964년의 도쿄 올림픽이란 일본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귀속의식, 즉 내셔널리즘을 실감하는 대회였다. 이러한 기억을 가지고 아베는 2020년의 올림픽 이후 고양될 내셔널리즘의 기운을 헌법 개정을 위한 동력으로 삼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일본의 개헌 정국에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연루되었다. 셋째, 아베는 팬데믹에 직면하여 올림픽의 연기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 일정을 우선시했다는 점이다. 아베는 코로나19 위기가 언제 수습될지 불확실했지만 2021년 9월에 만료되는 자신의 임기 내에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올림픽의 1년 연기를 추진하였다.

주제어: 도쿄 올림픽, 아베 신조, 부흥올림픽, 헌법 개정, 올림픽 연기

2020년 도쿄 올림픽과 도시재생의 역설: 신국립경기장 건설과 퇴거 | 김은혜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약 6만 8,000명 수용(8만 명 대응, 11만 3,000㎡)이 가능한 규모로 확장하는 '신(新)국립경기장' 공사가 완료되었다. 1958년 건립된 구(舊) 국립경기장은 1959년 아시안게임과 1964년 도쿄 올림픽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던 일본 스포츠 내셔널리즘의 유산(legacy)이었다. 일본 학계(건축·역사)와 시민사회는 자하 하디드(Z. Hadid)의 디자인을 반대하고, 외부 환경과 조화, 성숙시대에 적합한 계획 내용, 설명 책임을 골자로 하는 요망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새로운 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채택하고, 구국립경기장을 2014년 5월 31일에 해체했다. 설계 취소-해체-확장 공사라는 기나긴 과정 끝에, 경기장 주변 4만㎡ 부지까지 추가된 형태로 대대적인 건설공사가 추진되었다. 결국 2016년 4월 16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메이지공원(都立)의 노숙자들이 쫓겨났으며, 도영주택(都営住宅, 霞ヶ丘アパート)의 해체공사를 통해 거주자들(2016년 7월 4일 당시, 230세대)이 퇴거당했다. 경기장 건설에 사용하는 목재의 출처와 환경법 적용과 관련해서 말

레이시아 원주민의 인권문제도 제기되었다. 무리한 일정의 공사가 가속화되면서 2017년 3월에는 건설사 하청업체 20대 청년 직원의 과로 자살 사건이 발생해서 현재 산재(잔업 200시간)를 신청했다. 이 연구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국가-주도 젠트리피케이션(state-led gentrification)으로 규정하고, 도쿄 도심의 공간적 변화와 퇴거의 양상을 다중스케일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주제어: 도쿄 올림픽, 국가-주도 젠트리피케이션, 퇴거, 신국립경기장, 노숙자

도쿄 올림픽과 패전의 풍경: 〈이다텐: 도쿄 올림픽 이야기〉와 새로운 대하드라마의 가능성

| 김보경

이 글은 NHK 대하드라마 〈이다텐: 도쿄 올림픽 이야기〉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대하드라마라는 장르 안에서 1964년 도쿄 올림픽과 일본 근현대사를 논하는 첫 시도다. 〈이다텐〉은 대하드라마로서, 또 도쿄 올림픽을 다룬 드라마로서도 ‘이례적’이었기에 시청자 대다수에게 외면당했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대하드라마란 어떠한 장르이며 기존의 영상 매체는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어떻게 그려 왔는가, 다시 말해 〈이다텐〉이 참조해야 할 장르와 표현의 ‘규범’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과 관습에서 벗어난 〈이다텐〉의 인물 설정과 ‘달리기’라는 모티프, 서사 구조의 측면에서 라쿠고(落語)의 접목을 분석하여, 현재 일본에서 역사를 이야기하고 기억하는 하나의 권위적 틀로 자리매김한 NHK 대하드라마 안에서 〈이다텐〉의 시도가 보여 준 가능성과 한계를 밝히고자 했다.

〈이다텐〉은 표면적으로는 1964년 도쿄 올림픽은 물론 ‘돈’이 아닌 국가의 ‘명예’를 걸고 국제무대에서 싸워 온 근대 일본의 스포츠 ‘영웅’들을 내세우지만, 동시에 그들이 시대정신에서 이탈하거나 갈등을 보인 일면을 조명한다. 또 모두가 그리워하는 전후의 쇼와(昭和)만이 아니라, 일본 근대사에서 가장 문제적 시대이기도 했던 쇼와의 기억을 함께 소환하는 등, 기존 드라마의 관습대로라면 ‘배제’해야 할 인물과 사건들을 대담하게 ‘선택’한다. 특히 최종화에서는 라쿠고 〈도미큐〉(富久)를 매개로 하여, 드라마의 정점을 장식해야 할 도쿄 올림픽 개막식에 과거 일본이 침략한 땅 만주에서 패전과 함께 죽음을 맞이한 한 일본인 병사의 이야기를 중첩시킨다. ‘문화 국가’이자 ‘경제 강국’이라는 이미지로 전범국·패전국의 과거를 덮어쓰려 했던 1964년 도쿄 올림픽의 서사에 〈이다텐〉은 불편한 과거의 풍경을 삽입하는 것이다.

그동안 NHK 대하드라마가 기억하고 전승해 온 역사는 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근현대의 상당 부분을 배제해 왔으며, 시청자 대다수도 그 행위에 대한 현재적 평가가 갈릴 염려가 없는 먼 과거 인물들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즐겨 왔다. 이 같은 대하드라마와 주 시청자 사이에 오랜 기간 구축된 감상의 방식과 관습을 의도적으로 배반한 〈이다텐〉의 시도는 물론 불완전하였고, 불편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은 〈이다텐〉이 보여 준 새로운 대하드라마의 가능성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NHK 대하드라마, 〈이다텐: 도쿄 올림픽 이야기〉, 구도 간쿠로, 도쿄 올림픽, 라쿠고, 만주

이미지의 올림픽: 1964 도쿄 올림픽의 디자인 프로젝트 다시보기 | 박세연

1964년 도쿄 올림픽은 일본의 전후 재건과 부흥을 국내외에 알린 국가적 행사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도쿄 올림픽을 위해 진행된 디자인 프로젝트가 어떻게 제국주의, 군국주의의 과거와 단절된 평화국가, 경제대국, 문화국가라는 전후 일본의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제사회에 일본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데 시각적으로 기여했는지 검토하였다. 당시 도쿄 올림픽의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한 디자이너들이 중요하게 인식한 것은 국제적인 동시대성을 획득하는 동시에 일본적 정체성을 드러

내는 일본적 모더니즘의 성취였다.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대표적인 결과물이 가메쿠라 유사쿠의 올림픽 심벌마크와 1호 포스터라 할 수 있다. 가메쿠라는 일장기로만 여겨졌던 히노마루를 모던한 디자인으로 시각화하는 데 있어 히노마루가 일본의 국기를 상징하는 것이긴 하지만 태양의 이미지 같은 보다 보편적인 성격을 추구했음을 강조했다. 즉 일본 특수적인 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확장시키며 해석하는 방식을 전략적으로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가메쿠라를 비롯하여 프로젝트에 참가한 디자이너들은 그들이 전전(戰前)부터 축적해 온 디자인 문법을 선택적으로 전용하면서 전후의 새로운 국가 이미지 창출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과제에 부응하고자 했다.

주제어: 1964년 도쿄 올림픽, 디자인 프로젝트, 전후의 국가 정체성, 일본적 모더니즘, 가메쿠라 유사쿠

나가노 동계올림픽과 지역의 다층적 국제화 | 김희경

본 연구에서는 지역개발의 통시적 맥락 속에서 메가스포르츠 이벤트가 지역주민들의 삶에 미친 포괄적 영향을 나가노 동계올림픽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그리하여 현대 일본사회에서 지역성이 형성되는 맥락을 다룬 기존의 논의에서 간과되어 왔던 지역 내부의 다층적 층위를 드러내는 한편, 글로벌한 맥락에서 지역성이 구성되는 측면을 규명한다. 나가노 지역 사례를 통해 본 연구는 메가스포르츠 이벤트 유치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현대 일본의 지역사회가 직면하게 될 다차원적 도전들과 이에 대응하는 지역민들의 다양한 실천들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주제어: 메가스포르츠 이벤트, 나가노 동계올림픽, 지역활성화, 지역개발, 지역역동, 나가노, 지역성, 세계화

연구논단

도시의 냉각: 도쿄에게 헤이세이란 무엇이었을까? | 사다카네 히데유키

헤이세이 도쿄는 버블 붕괴나 인구 구조의 고령화가 주요 원인으로 정체되어 왔다. 20세기 후반, 청년층이 새로운 구매력을 구성하면서 신주쿠나 시부야, 하라주쿠와 같은 새로운 변화가가 연이어 생겨났다. 그것이 도쿄의 현재를 확인하는 ‘도쿄론’의 번성을 불러오고, 또는 더욱 대중적인 수준에서는 잡지에서 다루는 거리 이야기의 활성화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디스플레이션의 진행과 젊은층이 구매력을 잃으면서 도쿄는 더욱 ‘차가운’ 거리가 되었다.

물론 예외도 있었다. 과거 수도로서 도쿄를 지탱해 온 네이션의 틀에서 돌출된 힘이 도쿄의 지역을 바꿔 갔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에 따라 구매력을 키운 이민자들이 오후보로 대표되는 에스닉 타운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를 지탱하는 전후 가족의 틀에서 불거져 나온 사회적 구매력은, 아키하바라와 이케부쿠로로 대표되는 오타쿠 거리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변화는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그러한 변화는 부분적인 것으로 도쿄의 총체적인 틀을 바꾸지 못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도쿄의 지역은 개개의 가로나 상자로 분단되어 다양한 군중들이 모일 수 있는 ‘공통의 장소’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헤이세이 도쿄의 상황은, 코로나 이후 동아시아 여러 도시가 맞든 적든 마주해야 할 문제와 이미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도시, 소비사회, 도쿄, 에스닉 타운, 오타쿠

1960년대 일본의 고미술 수용과 감상의 변화: 『부인공론』(婦人公論)의 표지사진을 중심으로 | 김계원

이 논문은 1960년대 중반 일본의 여성잡지 『부인공론』(婦人公論)의 표지가 동시대의 고미술 수용과 감상 방식의 변화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사진가 도몬 겐(土門拳)이 기획한 ‘국보와 여배우’라는 제목의 표지사진 시리즈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도몬은 1964년 1월부터 1965년 12월까지 2년간 유명 여성 배우와 주요문화재를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연출하는 이색적인 형식으로 표지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기획은 첫째, 친밀성과 직접 체험을 토대로 고미술을 감상하는 진취적 여성상을 그려 냄으로써, 『부인공론』의 독자층인 ‘지식여성대중’에 어필할 수 있었다. 둘째, 표지가 그려내는 ‘진보적’ 여성 관객은 당시의 사회적 상황, 즉 1960년대 고미술 여성 관객의 증가와 대중문화 속 전통의 차용이라는 사회적 변화를 빠르게 포착한 결과이기도 했다. 셋째, ‘국보와 여배우’는 고도성장기 고미술의 관광자원화와 여성 여행객의 증가 속에서, 고미술 여행을 통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구체적 이미지로 독자에게 제공하는 기획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 관점에서 볼 때 ‘국보와 여배우’는 1960년대 일본의 고미술 수용의 변화와 감상 주체의 다변화라는 사회적 현상을 포착하여 『부인공론』의 독자층에 공감과 동일시의 지대를 제공하였다.

주제어: 『부인공론』, 1960년대 일본, 여성잡지 표지, 도몬 겐, 고미술 감상